

‘그대 내게 다시’의 가창 해석에 관한 연구

오한승*

*동아방송예술대학 영상음악계열
e-mail:ohs@dima.ac.kr

The Study on the Analysis for Korean Pop Ballad, ‘You Come Back to Me Again’

Han-Seung Oh*

*Dept of Applied Music, Dong-A Institute of Media and Arts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 대중가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라드, 특히 ‘그대 내게 다시’의 가창에서 효과적인 가창을 위한 멜로디의 가창 해석, 그리고 멜로디의 세부적인 느낌을 크게 좌우하는 표현 방법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다른 장르의 음악을 가창하는데 있어서의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1. 서론

‘가창(歌唱)’이란, 말 그대로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다. 대중가요 가창은 대중가요를 노래하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일상화가 된 대중가요는 대중예술의 한 분야로서 성악이나 관소리처럼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분명히 전통이 있으며 체계화 될 수 있는 어떤 틀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중가요 가창법에 있어서는 사실 그동안 클래식 성악 분야에 있어왔던 체계적인 면이 부족했었다. 또한 클래식이나 관소리와는 달리 너무나도 많은 개성과 다른 장르가 존재하며, 가수들의 가창법이 너무나도 다양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정형화된 가창법을 정립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창법들은 최종적으로 노래를 부를 때 종합적으로 가창에 적용되게 된다. 여기서는 대중가요 곡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창에 어떤 기법들을 적용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중가요 발라드 곡인 김형석 작곡의 ‘그대 내게 다시’를 분석하여 보고,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생각해 본다. ‘그대 내게 다시’는 곡의 형식과 멜로디의 흐름상 우리나라 가요 발라드의 형태와 느낌을 잘 나타내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는 잘 알려진 곡이다.

2. ‘그대 내게 다시’의 가창 해석

이 곡은 대중가요 작곡가 김형석이 작곡하여 변진섭에 의해 처음 불리워졌고 이후 이은미, 김건모, 김범수 등의 앨범에서도 리메이크된 대표적인 발라드 곡들 중의 하나로서 아름다운 멜로디의 곡이다. 변진섭의 원곡을 들어보면 그의 가창 스타일은 기교적인 가창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는 독백적이며 군더더기 없는 깨끗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사 전달에 있어서 아주 명확한 편이다. 이 곡은 전체적으로 기승전결이 명확한 멜로디의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음역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 좋은 발성과 표현기법이 있어야만 전체적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4분 음표와 2분 음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긴 호흡과 안정된 음정처리가 특히 필요할 것이다.

이 곡은 발라드의 가장 전형인 곡 형식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전주 이후에 나오는 총 16마디(1절-8마디A, 2절-8마디A')의 도입부 섹션, 그 다음 8마디의 전개를 B섹션, 그리고 곡의 클라이막스인 부분은 C 섹션으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살펴본 후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1 도입부 16마디 A-A'섹션

F Em7(b9) C#m7(b9) Dm C F Dm/B

그 대 내 게 다시 돌아 오 려 하 나 요

BbM7 Gdim/Bb C/A Dm BbM7/G G/A A7

내가 그델 사 랑 하 는 지 알수없어 헤메이 나 요

F Em7(b9) C#m7(b9) Dm C F Dm/B

맨 처 음 그 때와 같 을 순 없 겠 지 만

BbM7 Gdim/Bb C/A D7 Bb/G Bb/C F

겨울이 녹아 봄이 되듯 이 내게그냥 오면 되 요

이 부분은 도입부로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 멜로디의 흐름에 있어서는 리듬이 4분음표 위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긴 프레이즈의 멜로디에서 4분음표로 연결되는 멜로디는 너무 legato 해서 부를 경우 리듬감이 살지 못하고 클래식 가창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의 멜로디 처리는 non-legato로 하여 간결한 느낌이 들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섹션을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는 방법이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non-legato라 할지라도 받침의 자음을 연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사 첫째 줄과 셋째 줄의 ‘돌아오려’는 [도-라]로, ‘같은 순’은 [가-틀-쑈]으로 분명히 연습해 주어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어야 non-legato로 멜로디를 처리하는데 어색함이 훨씬 덜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발음하기에 따라 호흡을 낭비할 수도 있는 자음인, ‘그대’의 ‘ㄱ’, ‘돌아오려’의 ‘ㄷ’, ‘봄이 되듯이’의 ‘ㅂ’ 등이 자칫 잘못하면 호흡을 마신 직후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에 위치하므로 필요 이상의 호흡을 낭비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발성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멜로디가 스케일로 단계적으로 움직이다 갑자기 높게 뛰는 움직임이 있는 ‘내가 그델’ 부분과 ‘봄이 되듯이’의 부분이다. 특히 ‘봄이 되듯이’에서는 음이 한 옥타브로 상승하므로 좋은 톤을 이어가기 쉽지가 않다. 음이 상승하는 순간에 목을 더 열어주려고 의도해야만 톤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연습하여 부드러운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알 수 없어’와 ‘내게 그냥’ 부분에서는 단 6도

가 급히 하강하는 멜로디 부분으로서 성대가 많이 내려가게 되면 소리가 탁해지며 목소리 톤이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가벼운 느낌으로 발성을 해야지만 톤의 안정감이 생길 수 있다.

끝부분의 ‘오면 되요’는 흔하지 않은 4분음표 3연음의 리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정확한 박자를 우선 따로 확인한 후 멜로디를 붙어 노래해 보는 것이 좋다.

목소리 톤은 전형적인 가요 발라드의 도입부이므로 호흡이 적당히 섞인 진성을 이용해 독백의 말투인 듯한 부드러운 중저음을 이용할 수도 있고, 깨끗한 진성을 이용해 부를 수도 있다. 단 8마디가 두 번 반복되므로 첫 A부분의 8마디는 더 부드러운 독백조로 하고, 다음 A'부분에서는 진성을 약간 더 섞어서 도입부 내에서의 전개를 시도하는 표현 방법도 곡의 전체적인 기승전결을 표현하는데 적당할 수 있다.

2.2 전개부 8마디 B섹션

D#b/B D#b/Eb D#b/Ab Ab Bbm/G Em7(b9)/C F F7 Bb

헤 어졌던 순 간을 긴 밤이라 생 각해 그 대향한

C/A D7 Bb/G Bb/F G/A A7

내 마음 이 령 게 도 서 성 이 는 데 왜

이 전개부 8마디의 리듬적인 모티브는 앞의 전개부의 모티브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음역의 명확한 상승과 전조가 되므로써 섹션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음역대가 많이 높지 않은 고음역대와 중음역대를 넘나들며 노래해야 하므로 목소리 톤의 유지와 목이 긴장되지 않은 편안한 발성이 특히 필요한 부분이다. 전조가 되는 이 섹션의 첫 음정을 정확하게 내는 것을 코드진행에 익숙해짐으로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헤어졌던’의 ‘헤어’는 모음이 목을 열기가 비교적 용이한 부분이지만 ‘그대향한’의 ‘그’는 발성하기 불리한 단힌 모음이므로, 입술의 모양을 너무 오므리지 말고 발음을 크게 해주어야 발성도 시원하고 부드러운 톤이 나오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도’의 ‘도’ 부분은 5도로 음이 상승하는데, 고음역에서의 5도 상승은 많은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전개의 끝부분인 ‘서성이는데’의 ‘이’는 모음을 구음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음이 Ab으로 높기 때문

에 목을 열기가 쉽지 않으며, 따라서 좋은 톤을 만들기도 쉽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하여 좋은 톤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기교적으로 ‘그대 향한 내 마음’의 ‘내 마음’에는 장식음이 들어가는데, 이 장식음은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한 음정으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한다.

2.3 클라이막스 8마디 C섹션

이 부분은 곡의 클라이막스로서 감정적으로나 기교적으로 강한 느낌을 전달해야 한다. 음역대도 완전한 고음역대로 올라가므로 힘도 실려 있어야 하는데, 멜로디의 진행을 보면 4분음표 이상의 길이로 반복적인 고음을 내야 하므로 쉽지 않은 멜로디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목이 닫히기 쉬운 모음들이 들어간 ‘망설이고 있나요’의 ‘있’, ‘우리 헤어졌던’의 ‘리’, 등은 특히 모음이 불리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반복 연습을 통해 목이 열리고 좋은 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음역대를 가창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목이나 턱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음의 발음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뒤돌아 보지 말아요’의 ‘뒤’와 ‘돌’의 음절에서 ‘ㄷ’의 자음이 ‘ㅌ’에 가까워지면서 격음화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면서 노래하도록 한다.

또한 이런 경우 호흡이 급격히 빨라지거나 많이 내뿜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정한 호흡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많이 내뿜는 대신 적절한 복근의 사용으로 압력을 조절하면서 클라이막스의 느낌을 주는 것과, 강약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줄의 ‘더욱 서로 많은데’는 음역대가 중음역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A섹션의 반복 마무리로 연결되게 된다. 발성적으로 이 부분은 처음 도입부 와 거의 같은 느낌으로 돌아와 중저음의 편안한 톤으로 다시 가창하게 된다. 클라이막스에서 소리를 힘있게 내다가 갑자기 소리를 작게 내야 하므로 힘 조절 및

톤과 호흡의 안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대중가요 가창 해석을 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들 중의 하나가 바로 용어적인 문제이다. 대중가요에는 가창기법을 표현하는 용어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악보 표기에 있어서처럼 가창기법에 관한 용어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클래식 성악에서 용어를 빌려서 쓰는 것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중가요를 가창하는데 유용한 가창기법을 소개하고 그것이 클래식에서도 사용되는 것은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레가토 창법이나 논 레가토 창법은 클래식 성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대중가요의 가창에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용어들은 클래식 용어의 느낌이 너무 강한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 레가토 기법을 브레이크 기법이라고 하듯 대중음악, 대중가요에서 통용될 수 있는 용어의 정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대중가요의 가창법은 가수마다 개성의 차이와 자유로운 해석이 너무 다양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나, 벤딩 기법처럼 대중음악에서 많이 통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하여 대중가요 가창법 또는 표현기법에서의 체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용음악 분야 연구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차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1] 맹삼주, “20세기 새로운 가창기법과 그 기보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2] 편집부, “과플러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 [3] 심성태, “음악용어사전”, 현대음악출판사, 1996
- [4] Gloria Rusch, “Professional Singer’s Handbook”, Hal Leonard, 2001